

세례자 성요한 형제회 에세이 경시대회 당선자

메인주 윈슬로시 소재 세례자 성요한 형제회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에세이 경시대회 당선자를 발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수상자는 메인주 워터빌에 있는 콜비 대학에 다니는 조던 스미스입니다. 그는 워터빌에 있는 코르푸스 크리스티 본당 신자이며 콜비 카톨릭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던은 메리랜드주 서버나 파크 출신입니다.

성프란시스코가 쓴 태양의 찬가의 내용처럼 조던은 아름다움과 하느님의 관계를 총명함과 통찰력으로 철학적 해석을 했습니다. 그는 \$100의 상금과 성경책을 상으로 받았습니다. 이 젊은이의 훌륭한 글이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을 찬미합시다.

성프란시스코의 “태양의 찬가”를 보면 성인이 하느님, 자연, 그리고 인간사이의 관계를 깊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우선 그는 하느님을 “가장 높으신 분(지존)”으로 인식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느님의 위엄과 비견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느님뿐만 아니라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찬양합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피조물 안에도 존재하므로 피조물도 하느님과 함께 찬양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움의 본질은 피조물을 통하여 하느님의 존재를 볼 수 있는 이 ‘투명’한 측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투명성과 아름다움의 관계는 성인이 “형제인 태양”을 하느님과 가장 가까운 피조물로 여기는 데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태양이 하느님과 “닮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태양이 “아름답고 빛나기” 때문입니다. . 태양이 물리적 세상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빛을 비추어 세상에 생명을 주고 먹여 살리는 것처럼, 하느님의 넘치는 선도 존재하는 것을 지탱할 뿐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보여 준다고 믿습니다. 하느님은 아름다움 그 자체이시므로, 항상 아름다운 존재를 창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성프란치스코는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아름다움지 않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움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결코 아름다움을 거부하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움은 나를 내 존재에서 끌어내어 아름다움이 내재하는 피조물을 통해 내 존재의 근원으로 이끌어 줍니다. 아름다움은 아름다움 자체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한 태양의 찬가 후반부에서는 하느님, 자연 그리고 아름다움 사이의 진정한 관계가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말합니다. 성인은 “자매이신 어머니대지”를 찬양하며 대지는 우리를 지탱하고 영양분을 공급하여 아름다운 과일과 꽃과 약초를 생산한다고 말합니다. “자매이신 어머니 대지”라는 단어는 모든 피조물의 이중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대지를 하느님께서 창조한 단순한 땅이라고 보면, “자매”라고 할 수 있지만, 대지에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면,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열매들은 본질적인 "색깔"이 있습니다. 즉, 태양과 마찬가지로 어머니 대지가 먹여주는

영양분은 어머니 대지가 만드는 아름다움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프란치스코는 아름다움은 겸손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대죄 중에 죽은 자여 화가 있을 진저!” 라고 애도하며 오직 겸손한 삶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겸손은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자부심의 반대되는 말로서, 언제나 하느님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존재와 아름다움에 열려 있는 덕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느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피조물에 활짝 열것인지, 아니면 우리 안에 갇혀서 영원한 암흑을 경험할 것인지를.....